

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국내 8명·해외 3명 등 총 11명 구성...위촉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완도군은 지난 6월 30일 해양치유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치유 전문가 자문단은 국내 관련 전문가 8명과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전문가 독일 1명, 프랑스 2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현황 보고와 함께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문가 자문을 얻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으로 참여한 제주한라병원 김상훈 부원장은 "제주 한라병원과 We호텔에서 습득한 경험적 노하우를 완도군이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의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첫 자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르는 치유센터 운영 및 시설 방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제주도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것처럼 완도에도 코로나 청정지역 이미지가 더욱 강조된다면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자문단의 의견 일치를 봤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이 완도군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같이 앞장서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군은 이번 첫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매 분기별 1회를 정기 회의로 하여,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방안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코로나19 차단 위해 진도대교 발열체크장 운영재개

진도군, 44명 3교대로 종일 운영...탑승자 전원 체크



진도군이 코로나19 지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진도대교 발열체크장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도대교 발열체크장을 운영, 72일간 차량 36만대와 71만명을 검사하여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청정진도'로 각인됐다.

그러나 최근 6월 말경 광주와 목포에서 확진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하여 다시 한번 진도대교 발열체크장 운영을 재개했다.

발열체크장은 진도대교에 일일 44명, 3교대로 종일 운영하며 진입하는 차량의 탑승자 전원을 발열체크 하고 있다.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전공직자가 군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청정진도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것을 부탁 드린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강진산단 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산단 입주기업 간 '소통의 장' 역할 기대



강진군은 지난 1일 강진산단 관리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송욱 강진군수는 관리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 강진산단 입주기업 4개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은 지난 1일 강진산단 관리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송욱 군수를 비롯해 김전국 강진산단 입주기업협의회장, 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성전면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강진산단의 번영과 입주기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기업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기술 제휴 촉진, 협의회 운영 등 각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와 해결 등 민원창구 역할과 일부 행정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군은 분양 취약지구 공사 및 약취자감 용역, 강진군 공기정화 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쾌적한 강진산단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지원시설 용지에 편의점, 기숙사 등 편의시설도 착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송욱 군수는 "기업이 잘 돼야 강진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가 탄탄히 마련될 수 있다. 상생하며 발전하는 강진군을 위해 산단 관리사무소가 군과 입주기업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전국 협의회장은 "입주기업협의회 회원 모두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물론 강진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산단지는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에 655,267㎡(약 20만 평) 규모로 2018년 2월에 준공됐다. 기존 분양률이 16.4%에 불과했으나 민선7기 출범 1년만인 2019년 6월 완판과 더불어 분양률 100% 달성에 성공했다.

강진산단에는 현재 42개 업체가 입주승인을 받았으며 15개 업체가 가동 중, 10개 업체가 공장 신축 중이다. 이에 군은 남은 17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진산단 관리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및 공무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7기 2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7월 정례조화와 더불어 간소하게 개최된 이날의 행사는 민선7기 2주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내년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국비 6억원 확보...옥천·계곡·마산 주민 이용

해남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내년 개소해 권역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도·군비 등을 포함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부분소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1년 개소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는 사무실,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26기종 100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해 운영하게 된다.

동부분소가 개소되면 해남읍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나 산이면 북부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옥천, 계곡, 마산 등 면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2005년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본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서부사업소, 2015년 남부사업소, 2020년 북부사업소 개소에 이어 내년 동부사업소를 개소함으로써 5개소에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갖게 됐다.

장흥군,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장흥군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함평천지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